

# 光州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研究\*

## - 光山 地域을 中心으로

장선희\*\*

### 〈차례〉

1. 서 론
2. 광산지역 개관
3. 근대 이전 광산 지역의 문인들
  - 3.1 訥齋 朴 祥 (1474-1530)
  - 3.2 高峰 奇大升(1527-1572)
  - 3.3 漆溪 金彦琚(1503~1583)
4. 근대 이후 광산 지역의 문인들
  - 4.1 後石 吳駿善(1851-1931)
  - 4.2 石陰 朴魯述(1851-1917)
5. 결 론

### 〈국문초록〉

본고는 근대 이후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한문학 활동에 관한 고찰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 이후 광주에서 이루어진 한문학 활동을 광주지역 중에서도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근대 이전과 이후의 광주지역의 한문학 활동이 주로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필자의 판단으로 인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 이전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로 訥齋 朴祥(1474-1530), 高峰 奇大升((1527- 1572), 漆溪 金彦琚(1503~1583)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근대 이후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한문학 활동은 後石 吳駿善(1851-1931)과 石陰 朴魯述(1851-1917)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근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광주보건대학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보건대학

대 이후 이 지역의 한문학 활동을 보다 심도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자료가 더 보강되고 대상 인물들에 대한 개별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 광주, 광산, 박상, 기대승, 김언거, 오준선, 박노술

## 1. 서론

본고는 근대 이후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한문학 활동에 관한 고찰이다. 필자는 우리 문학이 신문학으로 이행되어 가던 근대 교체기 이후의 한문학의 활동양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고찰하여 왔다. 봉건과 근대가 부딪치던 근대교체기에 우리 문학의 주류를 이루어 오던 한문학과 새롭게 태동하던 근대 국문문학은 상당 기간 충돌하고 공존하면서 이행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두 문학의 교체기와 그 이후의 한문학의 행방에 대하여 추적해 왔다. 근대 이전의 국문문학인 시조나 가사가 그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한문학 활동 또한 근대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호남 권역에서 이루어졌던 근대 이후 한문학의 활동 양상을 각 지역의 시사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왔다. 호남의 남서부 지역인 목포 지역<sup>1)</sup>과 호남의 동부내륙지역인 구례 지역<sup>2)</sup>, 그리고 호남의 서부내륙지역인 장성 지역<sup>3)</sup>의 한문학 활동을 그 지역의 시사활동을 중심으로 고찰

1) 장선희, 「木浦詩社 研究」, 『言語文學』제4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0년 12월. 223-246쪽.

2) 장선희, 「근대후기 호남 지역의 한문학 활동에 관하여- 구례지역의 경우」, 『古詩歌研究』제 8집, 2001년 8월. 267-292쪽.

3) 장선희, 「近代 이후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고찰」, 『古詩歌研究』제 23집, 2009년 2월. 293-322쪽.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 이후 광주에서 이루어진 한문학 활동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광주지역 중에서도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근대 이전과 이후의 광주지역의 한문학 활동이 주로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필자의 판단으로 인해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작업에서 필자는 근대를 1860년대 이후로 설정하고 1910년을 기준으로 다시 근대 전기(1860-1910)와 후기(1910-1945)로 구분하여 고찰하여 왔다. 그런데 구례나 장성 등 각 지역의 한문학 활동을 조사한 결과, 근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서 시사를 중심으로 한문학 활동들이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고에서도 근대이후의 시기를 19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확대하여 조사 고찰하였다.

## 2. 광산 지역 개관

光州廣域市는 전라남도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에 둘러싸인 호남지방 최대의 도시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에 이어 국내 제 6위를 차지하는 대도시로 호남의 경제·행정·문화의 중심도시이자 광주·전라 지역을 관할하는 관공서와 여러 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역 자회사 등이 밀집한 호남권의 거점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까지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이기도 하였으나 2005년에 전라남도청은 무안군의 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광주는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하였다. 백제 시대에는 奴只라는 이름이 보이며, 백제 신문왕 6년에 武珍州라고 하였는데 신라의 백제 병합이후 경덕왕이 무진주에서 武자를 취하여 무주로 개칭하였다. 현재 쓰고 있는 光州란 이름은 고려 태조 대에 등장한다. 이후 행정구역의 변동에 따라

牧, 府, 縣, 郡 등의 행정단위 위계의 변동은 있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사용되어졌다. 1895년 근대 행정개편에 따라 나주부 광주군을 거쳐 1896년부터 옛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근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전라남도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1986년에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에 광주광역시로 개칭되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말 현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5개 자치구에 93개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光山區는 1988년 광주직할시의 주변 지역이었던 광산군, 송정시가 광주직할시로 편입되면서 광산구가 되었다. 동쪽으로는 서구·북구, 서쪽으로는 함평군, 남쪽으로는 나주시와 남구, 북쪽으로는 장성군과 접하면서 광주의 문호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광산구는 삼국시대에는 武珍州, 통일신라 시대에는 武州에 속하였다가 갑오경장 이후인 1895년에는 光州郡으로 광주에 부속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절인 1935년에는 광산군과 광주부, 송정면으로 분리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는 광주시, 송정읍, 나주군, 광산군으로 분할되었다. 1988년에 송정시, 광산군이 광주직할시로 편입되면서 광산구가 신설되었고 2010년 현재는 21개동으로 분할되어 있다.<sup>4)</sup>

광산구는 장성, 담양, 나주, 함평 등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조선 중기 이후 꽃피웠던 호남 학문과 문학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흔히 호남 학문과 문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을 한데 묶어 “光羅·長昌”이라고 하여 光州·羅州·長城·昌平이라고 이야기한다.<sup>5)</sup> 필자의 견해로는 여기에서 지칭하는 “광·나·장·창”에서의 광주는 광산, 즉 현재의 행정명칭으로는 광산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도 광산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 이후 광주에서 이루어진 한문학활동을 고찰하였다.

4) 광산구청 홈페이지-광산소개-연혁.

5) 장선희, 「近代 이후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고찰」, 4쪽.

### 3. 근대 이전 광산 지역의 문인들

#### 3.1 訥齋 朴 祥 (1474-1530)

朴祥(1474-1530)의 字는 昌世, 號는 訥齋이다. 본관은 忠州인데 부친인 智興이 부인 徐氏의 고향이었던 南平 인근의 光州 방하동 봉황산 아래로 이주하여 호남인이 되었다.<sup>6)</sup> 놀재의 아버지가 이곳 호남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는 부인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세조의 왕위찬탈과 관련하여 벼슬길을 포기하고 光주로 내려와 자리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놀재는 성종 5년(1474)에 방하동 본가에서 성균관 진사였던 부친 智興과 모친 桂城 徐氏사이에서 3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놀재는 23세(1495)되던 봄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28세(1501)에 정시(庭試) 을과에 급제하여 출사하였다. 놀재는 첫 관직으로 校書館 正字를 제수받은 이후 담양 부사, 승문원 교검 등을 거쳐 54세에 나주목사로 퇴임하기까지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30여년의 관직 생활 동안 놀재는 시종일관 강직하게 대의를 지키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선비로서의 기상을 견지하였으며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에는 청백리로 뽑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청렴했던 관리였다.<sup>7)</sup>

놀재가 호남문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크다. 놀재가 생존했던 16세기부터 17세기를 거치는 사이 호남에서는 훌륭한 詩人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그 수준에 있어서도 절정기를 구가하였는데 이 호남시단의 첫머리에 놀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조 대에 이수광이 ‘근세에 우리나라 시인은 호남에서 많이 배출하였다’<sup>8)</sup>하면서, 당대의 표표했던 인물로서 박상, 임억령, 임형수, 김인후, 양응정, 박순, 최경창, 백광훈, 임제, 고경명 등을 든 바 있다. 놀재를 비롯한 이 호남 10傑은 16세기 호남시단

6) 行狀, 「訥齋集」Ⅱ, 『韓國文集叢刊』19, 景仁文化史, 1995. 93쪽.

7) 行狀, 「訥齋集」Ⅱ, 93-95쪽.

8) 李晔光, 『芝峰類說』권14, 文章 7, 시예.

을 주도하고 한문학의 성세를 꾀한 대표적 인물들인데 그 인맥을 거슬러 추적하면 놀재로 집중되어 놀재가 호남시단을 발흥시킨 祖宗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놀재로부터 흥기된 호남 문학은 놀재의 문인이었던 송순과 임억령, 임형수, 김인후로 이어지고 박순과 백광훈, 최경창, 임제, 양응정, 기대승, 고경명, 김성원, 정철, 임제, 백광훈, 김덕령 등으로 계승되었다. 이들은 師承, 交友관계로 교류하면서 광주, 나주, 장성, 담양간의 누정을 왕래하면서 시사활동을 하였는데 광주, 담양, 장성 등에 산재해 있던 이들의 누정들은 각각 20-70 리 정도의 거리에 산재해 있어 사사와 교류의 교분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었다.<sup>9)</sup>

### 3.2. 高峰 奇大升(1527-1572)

기묘사화 이후 광주와 장성으로 이주해 온 집안 중에 幸州 奇氏가 있다. 행주 기씨의 본 세거지는 경기도 고양군 덕양으로 고봉의 할아버지였던 奇纘(1443~1492)은 다섯 아들을 두었다. 그러나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의 화를 입어 막내아들 遵(1492~1521)이 죽자 나머지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 중 둘째 아들인 遠(1481~1522)은 長城 黃龍의 아치실에 자리잡고, 넷째 아들 進(1487~1555)이 光山郡 林谷面 新龍 松峴洞에 자리를잡았다. 이들 행주 기씨의 호남 이거는 호남 유학에 커다란 자취를 남기게 된다. 광주에 자리잡은 넷째 기진의 둘째 아들이 조선 전기의 저명한 유학자인 高峰 奇大升(1527~1572)이고, 장성에 자리잡은 둘째 기원의 12세손이 조선 후기 3대 유학자 중의 하나인 蘆沙 奇正鎭(1798~1879)이기 때문이다.<sup>10)</sup>

고봉은 중종 20년(1527년) 광주 소고룡리 송현동 집에서 출생하였다. 고봉의 태생지인 소고룡리는 광주에서 임곡으로 가는 국도 인근에 있는 지역의 명칭인데, 이 소고룡리의 한 자연 부락인 新村이라는 마을에서 고

9) 장선희, 「近代 이후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고찰」, 11쪽.

10) 장선희, 「近代 이후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고찰」, 8쪽.

봉은 출생했다. 이 신촌 마을은 영산강의 지류인 황룡강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는 용진산이 있고, 왼쪽에는 어등산이 있다.

고봉은 7세에 학업을 시작하여 백부와 아버지에게서 글도 배우고 속부의 글도 읽으면서 性理學을 익혔다. 19세(1545년) 되던 해에는 乙巳土禍가 일어났으며 伯父가 살던 이웃마을 麥洞에서는 河西 金麟厚(1510~60)가 벼슬을 그만두고 서당을 열어 강학을 시작하였다. 고봉은 20세(1546년)때 鄉試 進士科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21세 되던 해에 성균관에 유학하였다. 32세(1558년) 되던 해에 문과에 1등으로 급제하였는데 이 때 고봉은 退溪 李滉(1501~1570)을 만나 四端七情理論을 發論하였다. 이후 40세(1566년)까지 8년 동안 四七論辯을 계속하면서 퇴계와 학문적 유대와 교류를 지속하면서 대학자로 성장하였다. 이후에도 고봉은 계속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병으로 자주 귀향하였다. 46세(1572년)에도 고봉은 成均館 大司成에 임명되고 대사간에 배수되었으나 병으로 귀향하던 도중 천안에서 병이 악화되어 큰 자부의 친정인 태인에 있는 梅堂 金拈의 집에서 46세를 일기로 운명하였다. 고봉은 이듬해인 1573년 2월 그가 태어난 新龍에서 15리 가량 떨어진 羅州 烏山里 通峴山 廣谷마을에 묻혔는데 원근에서 모여들어 장례에 참여한 이들이 수백명이었다고 한다.<sup>11)</sup>

고봉의 학문은 그가 이룩한 업적에 비해 후대로 전수되지 못하였다. 이는 고봉이 46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생전에도 크고 작은 병들로 계속 시달렸으며 여러 벼슬들에 천거되는 관계로 제자들을 길러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고봉의 문집인 『高峰集』은 모두 10권 8책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2007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高峰集』을 국역한 『국역 고봉전서』를 5권으로 간행하였다. 『국역 고봉전서』에 수록된 고봉의 글은 시가 676수이며 表, 論, 祭文, 墓碣銘, 雜著 등의 글들로 엮어져 있다. 고봉의 시 속에 나오는 교유인물들 중에서 빈도 수가 많은 인물들은 그와 학문적 연대를 맺고 사숙하였던 退溪 李滉과의 시

11) 高峰先生年譜, 『국역 고봉전서』5, 민족문화추진회, 2007, 7-55쪽.

들이 가장 많고 思菴 朴淳, 季眞 李後白, 汝守 李山海 등과도 많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봉도 조선 중기의 호남시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松川 梁應鼎, 俛仰亭 宋淳, 石川 林億齡, 霽峯 高敬命, 棲霞堂 金成遠, 松江 鄭澈, 漆溪 金彦瑠 등과 교류시기가 곳곳에서 보이고, 식영정, 환벽당, 요월정, 풍영정 등의 누정을 왕래하면서 남긴 시들이 여러 편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봉의 학문 연구에 비해서 문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다. 고봉이 남긴 시편들과 글들을 중심으로 고봉과 당시의 문인들과의 관계를 고찰해 간다면 고봉이 당시의 문인들과 어떤 교유관계를 형성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고봉의 문학적 위상도 추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3 漆溪 金彦瑠(1503~1583)

조선 중기 호남 문학이 이루어진 현장은 호남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누정에서였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 빈번히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과 사회에 연루된 선비들이 벼슬살이에 환멸을 느끼고 고향으로 내려와 자연과 벗하면서 생겨난 것이 누정이다. 당시에는 150여 개의 누정이 있었다고 하니 이 일대는 그야말로 한국 누정문화의 본고장이자, 한국 문예부흥기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곳 “광·나·장·창” 지역에는 무등산 원효계곡에서 시작하며 창평, 담양 일대로 이어지는 지역에 자리 잡은 수많은 누정들이 있었다. 면양정, 소쇄원, 독수정, 식영정, 송강정, 환벽당, 명옥헌, 풍암정 등을 포함하여 약 70여 개의 누정이 창평과 담양 일대에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sup>12)</sup>

누정이 가진 기능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시단으로서의 역할이다. 대체로 누정은 경치가 좋은 곳에 세워졌고, 따라서 많은 시인 묵객들이 출입

12) 조용헌, 「한국 누정문화의 최고봉, 고봉의 ‘계산풍류’」 고봉학술원, 『전통과 현실』 24호, 2003, 고봉학술원, 53-60쪽.



하면서 시가활동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 시단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모든 누정이 예외없이 가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광주 권역의 누정 중에서 특히 이 시단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 곳은 담양의 식영정, 면양정, 광주의 풍영정, 풍암정, 호가정, 만귀정, 소해정, 연과정, 원풍정, 하은정 등을 들 수 있다.<sup>13)</sup>

광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누정은 풍영정(風詠亭)이다. 풍영정은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金彦琚(1503~1583)가 1560년에 承文院 判校에서 물러난 후 鄉里로 돌아와서 고향인 漆溪의 시내 위에 정자를 짓고 風詠이라고 편액하였다. 정자의 이름인 풍영정은 論語의 風雩詠歸에서 취했다고 하며<sup>14)</sup> 풍영정이 자리한 곳은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광산구 신창동 852 극락강변의 하남으로 가는 산단 도로 옆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 골기와 팔작지붕의 건물로 지방문화재 자료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sup>15)</sup>

풍영정을 지은 金彦琚(1503~1583)의 자는 季珍, 호는 漆溪이며 본관은 光山이다. 義州教授 金禎의 셋째 아들로 광주의 馬池面 仙滄里(현재의 풍영정이 있는 곳) 집에서 태어났다. 칠계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었고 학문에 뜻을 두어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중종 20년(1525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1531년에 문과에 합격하여 承文院 副正字가 된 이후 1560년에 승문원 판교로 퇴임하기까지 30여년간 관직 생활을 하였다. 칠계는 퇴임한 후에 고향인 칠계 시내 위에 풍영정을 짓고 당시의 명현들과 교류하면서 소요하다 1583년에 82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자신이 태어났던 마지면 선창산에 안장되었다.<sup>16)</sup>

칠계의 교유의 범위는 굉장히 넓었던 듯 하다. 그가 말년에 풍영정을 짓자 당시의 명현들인 退溪 李滉, 河西 金麟厚, 南溟 曹植, 圭庵 宋麟壽, 眉巖 柳希春, 俛仰亭 宋純, 愼齋 周世鵬, 湖蔭 鄭士龍, 企齋 申光漢, 林塘

13) 『광주역사』, 광주광역시사편찬 위원회, 1998.

14) 年譜, 『漆溪遺集』全, 湖南文化社, 2004, 43-46쪽.

15) 광산구 홈페이지-문화관광-풍영정 편 <http://www.gwangsan.go.kr/>

16) 年譜, 『漆溪遺集』全, 43-46쪽.

鄭惟吉, 高峰 奇大升, 松江 鄭澈, 陽谷 蘇世讓, 懷齋 朴光玉 등과 같은 인사들이 끊임없이 방문하며 시편과 간찰이 이어졌다고 한다.<sup>17)</sup> 『漆溪遺集』에 나오는 교유인사들은 모두 84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조선 중기 당시의 유명 인사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칠계와 평생 가장 친밀한 교유관계를 가진 사람은 퇴계 이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퇴계가 칠계의 시에 차운하거나 보낸 시가 37수 가량이나 되며 위에서 거론한 인물들도 풍영정의 운에 차운한 시들을 남겼다.

칠계가 건립한 풍영정은 1898년에 중수되었고 松沙 奇宇萬이 重修記를 썼다. 1922년에 송정리- 광주 사이에 철도가 부설되어 풍영정의 동편 기암절벽이 훼손되었는데 1948년에 이를 보완하면서 다시 중수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보수와 교체를 거듭하였다. 풍영정은 초기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세대에도 활발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풍영정 시를 남긴 사람들의 후손들이나 풍영정의 후손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는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래를 하며, 이곳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고, 시문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지금도 풍영정의 정자 안쪽에는 70여개, 130여수의 詩板과 韓石峯이 쓴 ‘第一湖山’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보존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이다.

칠계의 시편들은 1592년의 임진왜란 때 떠돌아 다니다가 대부분 유실되고 1922년에야 서적들과 제현들의 문집을 참고하고 남아있는 시편들을 수집하여 『漆溪集』을 편찬하였다. 2004년에는 원문을 국역한 「漆溪遺集」 국역본을 편찬하였으며 2007년에는 광산 김씨 칠계공파 문중에서 풍영정에 보관된 현판의 시들을 수록한 『風詠亭 詩選』을 간행하였다.<sup>18)</sup>

17) 年譜, 『漆溪遺集』全, 43-46쪽.

18) 跋文, 『漆溪遺集』全, 329-334쪽.

風詠亭 沿革, 『風詠亭 詩選』, 湖南文化社, 2007. 203-204쪽.

#### 4. 근대 이후 광산 지역의 문인들

근대 이후 광산지역의 한문학을 이야기할 때 먼저 장성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 유학의 한 분파인 蘆沙學派를 일으켰던 蘆沙 奇正鎭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장성 지역은 조선 중기에는 河西 金麟厚(1510-1560)를 중심으로 학문과 문학을 꽃피웠으며 근대 이후에는 노사 기정진을 중심으로 학문과 문학 활동이 이루어졌다.

노사는 1798년 전북 순창군 福興面 金坊洞에서 태어났다. 노사는 18세에 양친을 여의고 장성 하남으로 이거하라는 부친의 유언에 따라 순창에서 장성으로 이거하였다. 이후 1853년에 장성 珍原面 高山里 下沙마을로 이사하고 자신의 호를 ‘蘆嶺 산줄기 下沙에서 사는 사람’이라 하여 蘆沙라 하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만년을 보냈다. 노사는 81세 때 澹對軒이란 精舍를 건립하여 제자들의 강학 장소를 삼았는데 澹對軒은 노사 사후에 다시 重建되어 1927년에 高山書院으로 개칭되었다. 노사는 저명한 스승에게 사사하지도 않았고 퇴계학과니 율곡학과니 하는 학과적 연원에 속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의 즐기찬 학문적 연찬과 체득에 의하여 독자적인 사상인 理一分殊의 唯理論을 체계화시켰다. 노사가 주창한 理一分殊의 唯理論은 조선조 성리학에서 300여년을 지속해 오던 主理와 主氣의 논쟁을 극복하고 그때까지 양분되어 있던 성리학을 하나로 체계화시키면서 근대 유학의 한 분파를 개창하였고, 노사는 근세 유학의 3대가로 평가되고 있다.<sup>19)</sup>

『蘆沙先生淵源錄』 「先生門人編」을 보면<sup>20)</sup> 노사로부터 직접 훈도를 받은 제자들은 모두 594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노사가 거주하던 장성 인근의 전라남도 지역과 순창과 임실 등의 전라북도 지역, 그리고 경상도 산청, 삼가, 초계, 진주, 함양, 하동 등에까지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노

19) 玄相允,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77(6판), 368쪽.

20) 『蘆沙先生全集』附 答問類編, 「淵源錄 先生門人編, 諸家門人編」, 보경문화사, 1983, 904-984쪽.

사가 1879년 12월 29일에 8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服을 입은 문인들이 1백여 명에 달하였으며, 노사의 直傳弟子와 再傳弟子와 三傳弟子까지 합하면 노사의 문인 수는 4,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sup>21)</sup>

근대 이후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학자와 문인들은 대부분 노사의 제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활동이 활발하였으며 자료 입수가 가능하였던 後石 吳駿善과 石陰 朴魯述을 중심으로 근대 이후의 광산지역의 한문학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 4.1 後石 吳駿善(1851-1931)

吳駿善(1851-1931)의 字는 德行이요 號는 後石이며 本貫은 羅州이다. 후석은 1851년 12월 羅州郡 三道面 道德里 道林마을 (현 광주 광산구 도덕동 도림마을)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31년 6월 81세로 이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sup>22)</sup>

후석의 가문인 나주 오씨 집안은 나주의 토호 오다련의 딸 고려 왕건의 태조비인 장화왕후와 고려 2대 혜종을 낳은 명문가문이다. 그러나 다련군 이후의 기록은 요원하다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 다시 가문이 번성하였다. 중·명종, 선조 조의 명신으로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한 吳謙(1496-1582)은 담양부사, 광주목사를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는데 오겸의 아우인 吳認과 吳諫도 학문에 현달하였다. 오원의 손자인 吳希吉은 김인후와 정여립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중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과 조선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내장산으로 옮겨 보전한 공신이다. 吳希道(1583~1624)는 선조, 인조 대에 기주관을 대신하여 어전에서 사실을 기록하는데 민첩하여 여러 대신들의 칭찬을 받으며 검열에 제수되었다. 만년에는 錦城의 옛 고향 大明谷에 거처하면서 明谷이라 자호하고 뒷산 기

21) 고영진, 「노사학과의 학통과 사상적 특성」, 『문향』 제11호, 장성문화원, 2000, 63쪽.

22) 고영진, 「노사학과의 학통과 사상적 특성」, 63쪽.

습에 집을 지어 忘齋라 하였다. 1625년에 명곡의 넷째 아들인 吳以井(1618~1655)이 부친을 기리기 위해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에 鳴玉軒을 짓고 연못을 만들고 백일홍을 심어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苑林을 자랑하고 있다.

후석은 부친 吳夏圭(1829~1872)와 모친 錦城 羅氏의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백부인 錦沙 吳恒圭(1824-1874)에게 입후하였다. 후석은 어릴 때부터 특출하게 영리하였으며 범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라면서는 침착하고 묵직하였으며 조용하고 근엄함이 마치 어른과 같았다고 한다. 나이 8세 때에 배움에 들었는데 뛰어나게 총명하여 바로 文義를 깨우쳤으며 겨우 8달이 되던 초에 祖考의 襄禮를 당하자 능히 祝辭를 읽어내므로 종족들이 모두 후에는 능히 뛰어난 才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후석의 배움이 익숙해지자 양부였던 금사공은 그를 族叔인 臨履 吳泰圭에게 보내어 四書와 心經, 近思錄 등을 배우게 하였다. 難窩 吳繼洙는 임리공의 손자였는데 서로 더불어 익히고 연마하며 갈고 닦아 늙도록 책을 지니는 것에 해이하지 않았다. 石門·永思齋 등의 처소를 왕래하면서 주야로 침식을 잊고 익히기를 거의 십여 년 동안 하였다. 그는 한번 눈으로 본 것은 잊지 않고 암송하기를 물흐르듯이 유창하게 하여 사람들로부터 ‘書庫’라 칭해지기도 하였다.<sup>23)</sup> 후석은 18세(1868년) 되던 때에 장성 진원의 하사마을에 거주하던 당대의 대유학자 노사 기정진을 알현하였다. 노사는 한번 그를 보고는 愛重하여 말하기를 “너의 집안이 본디 문헌으로써 세상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제 또 너를 보니 가히 다행스럽구나.”하면서 격려하였다. 이로부터 노사의 문하에서 후석은 더욱 학문에 힘쓰고 질의할 바가 있으면 많이 蒙印하였다. 또한 더욱 스스로 뜻을 勉勵하고 한 곳을 정하여 머물면서 奧妙하고 期臻한 昭曠之原을 潛思 探究하였다. 후석은 24세(1874년)때 全齋 任憲晦를 만나고 또 楠谷 宋近洙를 찾아 拜謁하였다. 50세(1900년)에는 淵齋 宋秉璿을 만나 答問하였고 勉

23) 家狀, 『後石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韓國文集編纂委員會, 景仁文化社 刊行, 1991, 538- 560쪽.

菴 崔益弦을 만났는데 면암은 그를 보고 남도의 선비로서 그 이름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10여일을 함께 강론하였다. 55세(1905년)에 을사5조약이 체결되자 대신들과 유신들이 서로 이어서 殉命하고 勉菴은 의병을 일으켰으나 패하고 대마도로 유배되었다. 또 이때 같이 동문수학 하던 省齋 奇參衍과 鹿川 高光洵이 함께 舉義하기로 하고 찾아와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선생은 구순인 노모를 봉양할 사람이 없는 이유로 사양하고 討復의 뜻을 마음에서 끊어버렸다. 60세(1910년)때 경술 국치를 당하자 후석은 “오백년 예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夷狄 禽獸의 땅이 되었구나”라며 통분하였다. 망국의 현실은 곧바로 후석에게도 직접적인 압력으로 다가왔다. 일제는 1910년 강제로 합방을 선포한 후, 조선의 儒紳 耆老들에게 恩賜金의 명목으로 금품을 내려보냈다. 이에 후석은 단호히 은사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밝혀 글로 써 보내 거부하였다. 이후 일본 헌병들은 여러 차례 헌병들을 보내어 회유하고 협박하다가 끝내 거부하자 잡혀가 20여일 동안 투옥되었다가 풀려나는 고초를 당하였다.<sup>24)</sup>

후석은 일제에 의해 고초를 겪은 후 곧바로 입산하여 石門으로 들어갔다. 石門은 그의 선조인 石門先生의 休退終老地이자 오준선이 젊은 시절에 수학하던 장소였다. 후석은 이 곳 石門에서 수년 동안 거주하면서 동지와 문생들과 함께 聳珍山中에 築室할 것을 도모하였다. 후석은 일찍부터 용진산의 산수를 사랑하여 이 곳에 숨어 수양할 뜻을 두었으나 과단하지 못하다가 1917년에 聳珍山 속에 聳珍精舍를 짓고 강학장소를 聳珍洞天으로 옮기고 道를 講하면서 自樂하여 늙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문인들과 선비들이 계속하여 서로 접하면서 거문고를 타고 시를 읊는 등 학문에 힘쓰기를 성대히 하였다. 봄·가을로 예를 익히고 작성하는 풍조가 盛하였다.<sup>25)</sup> 후석은 이 곳 용진정사에서 날이 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즐기다가 중풍을 맞아 수년 동안 行步를 任意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

24) 家狀, 『後石先生文集』, 538- 560쪽.

25) 行狀, 『後石先生文集』, 567쪽.

러나 문인들과 더불어 강론하기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마치 고질병이 깨끗이 나은 것처럼 부지런히 가르쳐 인도하기를 조금도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오준선의 기력은 날로 쇠하여 1931년 4월에는 가마를 타고 본 집으로 돌아갔다. 오준선은 자신이 장차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손자 근호에게 襲斂의 모든 준비를 생략하고 위에 深衣만 사용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또 銘旌을 어찌 쓸까를 묻자 ‘朝鮮遺民’이라 하라 하고는 ‘植齋의 행장에 쓴 바가 바로 나의 뜻이라’고 하였다. 후석은 1931년 6월 21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용진정사의 동쪽 언덕에 안장되었다. 그의 장례에는 白巾을 쓴 문인들이 70여인이었으며, 와서 존문하거나 장례에 모인 자가 무려 4,5천명이나 되었다고 한다.<sup>26)</sup>

지금까지 후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에서 이루어졌는데 후석의 의병활동과 항쟁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었다. 역사학에서 오준선의 의병활동과 항쟁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오준선이 용진정사에 들어간 후, 義兵들의 행적을 수집하여 傳記를 편찬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省齋 奇參衍, 鹿川 高光洵, 竹峯 金準, 海山 全垂鏞의 전기와 植齋 奇宰, 難窩 吳繼洙의 행장을 기록한 것이 후일 호남 義兵史의 생생한 기록이 되었다. 또한 오준선의 문인들 중에서 錦齋 李起巽, 義齋 吳相烈, 竹坡 吳成述, 海山 全垂鏞 등 호남 의병장들이 대거배출되었으며 이 의병들의 격전지가 魚登山, 石門山, 大明洞, 湧珍山 등으로 후석의 용진정사 주변을 중심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후석을 호남 의병운동의 중심에 두어 평가하였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1970년에 광복 25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독립운동사 사료 연구가 후석의 의병 항쟁사 자료를 기초하여 편찬한 것이며, 2006년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오준선과 한말의병>이라는 주제로 오준선의 의병과 관련된 부분을 조명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또 2011년 11월에는 전남대학교

26) 家狀, 『後石先生文集』, 538- 560쪽.

호남학연구원 주최로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 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오준선의 가계와 생애’, ‘오준선의 학풍과 성리사상’, ‘오준선의 의병전 저술과 후학 양성’등의 발표가 있었는데 역시 후석의 의병항쟁과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둔 것들이었다.<sup>27)</sup>

본 연구자는 이들과 견해를 달리하여 후석이 근대교체기에 자신의 시대 적응방식을 교육에 두었다고 생각한다. 후석의 家狀이나 行狀 등을 통해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후석은 시대의 변화에 교육으로써 대응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 사회가 급변할 때에 松沙 奇宇 萬과 함께 매일 초하루에 輪講을 실시하여 많은 선비들을 독려하였으며 아직 피어나지 못한 인재들을 모아 교육하는 풍토를 이루었다. 또한 44세(1894)때 일어난 갑오경장 때에도 후석은 동학이 소요하고 邪說들이 크게 일어나 무지한 우민들이 모두 일어나 방황할 때 이를 근심하여 동지들을 규합하고 鄉約을 행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고 상벌을 시행하며 사특한 것들을 불식시키는데 분주하였다. 46세(1896년) 봄에는 송사 기우만은 장성에서 창의하였지만 후석은 士氣가沮喪하고 邪學이 날로 성해지자 鄉約을 설치하고 藍田 石潭의 遺規를 모방하여 民風을 진작시킴으로 風俗이 오히려 不變하고 인근의 고을들을 많이 변화시켰다.<sup>28)</sup> 일제에게 병합된 이후인 식민지 치하에서도 후석은 ‘이곳에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모였는데, 1913년부터 계속되었던 것 같다. 1915년 강회에는 장성의 金堯明 등 254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는 기록이나 ‘1917년 음력 9월 보름 그는 6-7명의 관동을 데리고 이곳에서 처음에는 石南精舍라 이름하였으나, 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 집이 비좁을 정도였으나 가르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곳은 봄, 가을로 設講習禮者가 수백 명이나 모을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는 기록을 볼 때<sup>29)</sup> 밀려들어오는 서구

27) 노기욱, 「오준선의 가계와 생애」, 안동교, 「오준선의 학풍과 성리사상」, 홍영기, 「오준선의 의병전 저술과 후학양성」,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11.16.

28) 家狀, 『後石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韓國文集編纂委員會, 景仁文化社 刊行, 1991, 538- 560쪽.



의 근대적 풍조에 전통적 유학을 더욱 교육하고 鄉約을 설치하고 藍田 石潭의 遺規를 모방하여 民風을 진작시키는 대응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그는 의병투쟁 등의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대응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행동양식을 선택하였다.

후석 사후 그의 문인들은 1934년에 일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스승의 문집인 『後石遺稿』를 간행하였다. 후석의 문집에는「義兵傳」을 비롯한 항일적인 색채가 많았으므로 문집의 일부가 압수되고 禁書 조처를 당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그의 문인들은 1939년에 용진정사 동쪽에 影閣을 영각을 신축하였는데 일본 경찰의 집요한 방해를 받아 영정을 봉안하지 못하다가 1942년에야 蔡龍臣이 1924년에 그린 초상화를 봉안할 수 있었다. 오준선의 제자들은 1948년 3월에 용진정사에 모여 <문인록>과 <용진사>를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오영렬 등 492명이 모금에 참여하여 1949년 4월에 문인록이 포함된 <용진지>가 간행되었다. 따라서 오준선의 문인록은 그의 사후 17년이 지난 1948년에 정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용진지>에 수록된 그의 문인은 총 632명이다. 이들은 대체로 187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전반에 출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으나 연령층이 다양한 편이었다. 이들 중에 오씨가 104명을 차지했는데, 특히 나주 오씨가 1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sup>30)</sup>

홍영기의 조사와는 별도로 본 연구자는 후석의 스승이었던 노사 기정진의 문집<sup>31)</sup> 속에 수록된 자료를 조사하였다. 노사의 문집 속에 수록된 후석의 문인들은 총 88명이 수록되어 있다. 문인들의 성씨별 분포도는 나주 오씨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청송 심씨 6명, 김해 김씨 6명, 안동 김씨 2명, 울산 김씨 2명, 광산 김씨 6명, 밀양 박씨 6명, 행주 박씨 3명 등의 순이다. 또 문인들의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나주 47명, 함평 7명,

29) 홍영기, 「오준선의 의병전 저술과 후학양성」,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11.16, 56-58쪽.

30) 홍영기, 「오준선의 의병전 저술과 후학양성」, 56-58쪽.

31) 蘆沙先生紀念事業會, 『蘆沙先生全集』附 答問類編, 「淵源錄 先生門人編, 諸家門人編」, 927-928쪽.

장성 7명, 고창 5명, 광주 5명, 남평 5명, 무정 4명, 창평 2명, 영광 2명, 서울, 고부, 무안, 여수, 곡성, 정읍 각 1명씩으로 오준선이 거주하던 광산을 중심으로 문인들이 모여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후석의 문집인 『後石遺稿』는 1991년에 한국문집편찬위원회에서 『한국역대문집총서』 444-447 전 4권으로 간행하였다. 문집의 내용은 시가 325편, 서 435편, 잡저 26, 기 155편, 발 42편, 상량문 27편, 묘갈명 144편, 묘표 56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석의 시를 통해 그의 교유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그가 스승으로 모셨던 蘆沙 奇正鎭, 勉菴 崔益鉉, 淵齋 宋秉璿에게 바치는 시들과 노사 문하에서 함께 동문수학하였던 柏下 梁相默, 松沙 奇宇萬, 難窩 吳繼洙, 義齋 吳相悅, 竹坡 吳成述, 弦窩 高光善, 德巖 羅壽圭, 金堯明, 金堯元 등과 朴魯述, 沈遠杓, 沈鐘大, 沈翰求 등과 주고 받은 시들이 있다. 또한 후석도 松江亭, 醉歌亭, 鳴玉軒, 松石亭, 不換亭, 淸陰亭, 悅雲亭, 映荷亭 등의 누정 등을 왕래하면서 교유, 문인들과 시사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석의 문학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2 石陰 朴魯述(1851-1917)

광산구에는 여러 문화유적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風泉臺가 있다. 풍천대는 石陰 朴魯述의 抗日義蹟을 기념하는 三層 石臺이다.

풍천대의 주인공인 朴魯述은 1851년 광주의 安淸里 집에서 태어나 1917년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sup>32)</sup> 朴魯述의 號는 石陰이요 字는 公善으로 본관은 平壤이다. 그의 선조 敦寧公 叔善이 집안이 번성하자 난을 피하여 집을 처서 호남의 금성으로 피하였는데 第三子 되는 而恭이 특히 선조의 뜻을 繼述할 생각으로 光州로 移居한 이후 대대로 世居하였다.

석음은 度量이 莊重하고 孝友에 勤詳하였는데 겨우 걸음을 익힐 때부

32) 解題, 『石陰遺稿』, 鄕土文化研究資料 第二十八輯 발행: 全羅南道·長城郡 편집: 韓國古文研究會, 인쇄: 保景文化社, 1989, 3-5쪽.

터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말을 배우고 한편으로는 寡黙하였다. 6세 되던 때에 伯兄이 배움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는 청하여 같이 책읽기를 배웠는데 부친인 觀魚公이 그 淸弱함을 보고 번민하자 석음이 가로되 형은 年長者이니 마땅히 수업을 날마다 많이 받아야 하고 나는 나이가 적으니 마땅히 하나를 배우면 절반을 아는 것이 또한 옳지 않습니까 하니 공이 그 말을 기이히 여겨 동학들로 하여금 이후로는 伯仲이 책상을 함께 하여 서로 돕게 하고 정독하기를 번민하지 않으니 책읽는 소리가 집의 문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갔다. 노사 기정진의 대제자인 大谷 金錫龜가 석음이 지은 草稿를 보고는 말하기를 ‘뒷날 詞苑에서 깃발을 날릴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라’하고는 친히 명하기를 玉川山坊에 거하면서 河西의 訓蒙齋에서 講學하면서 ‘有朋來’하는 기쁨을 크게 하였다. 드디어 慨然히 求道の 뜻을 두고 蘆沙 奇正鎭을 沙上에서 알현하니 선생이 크게 권장하고 장려하였다. 大道의 要諦를 얻고는 물러나면 松沙와 반복하여 논변하면서 誠敬之義를 深得하였다. 1900년에는 淵齋 宋秉璿이 考巖에서 設講하자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는데 석음이 門下를 통솔하면서 諸生들을 데리고 강의를 마치고 飮禮를 행하는데 무리들이 석음을 천거하여 禮를 執行하게 하였는데 조금도 착오가 없게 하니 많은 선비들이 모두 敬服하였다. 1883년에는 위로부터 賢良의 科擧가 있음으로 석음이 장원으로 참여였으나 便殿의 面試에서 끝내 천거되지 못하였다. 석음은 아름다운 뜻을 舉業에 두지 아니하고 친히 事君의 道를 즐거워 하였으니 이로부터 벼슬에 대한 욕심을 버렸다.

1896년 봄에 송사 기우만이 倡義하여 旅檄으로 여러 고을에 고하니 석음이 격문에 응답하는 글을 지었는데 글의 뜻이 격렬하여 족히 선비들의 士氣를 감동케 하였다. 1905년 이후 천지가 뒤집어지니 淵齋 宋秉璿, 勉菴 崔益鉉이 先後하여 義에 나아가니 석음이 ‘命이 다하였구나. 나는 장차 어디로 갈까’탄식하면서 손수 정원에 松. 菊. 柳를 심고 ‘栗里田舍’라 扁額하니 대개 潯陽의 은밀한 뜻이 있었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서 집문을 폐쇄하고 謝絶하기를 살고 싶지 아니한 것처럼 하였다. 일제가 원로

들을 우대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은사금을 지급하자 석음은 받지 못할 뜻을 크게 써서 엄히 퇴치니 비야兵站에서 구금하고 다시 本隊로 넘겨지니 본대의 우두머리가 이르기를 “이 金은 천황폐하께서 하사하신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느냐”하니 석음이 대답하기를 “나는 韓國人이라 어찌 가히 너의 나라의 金을 받겠느냐”였다. 또 저가 가로되 “日韓이 이미 합병하였는데 어찌 감히 받지 아니한가”하니 석음이 대답하되 “이미 우리나라에서 受養되었는데 또 너의 나라에서 주는 것을 받는다면 이것은 異心이라. 60년 동안 책을 읽고 익혀서 밝은 것이 忠과 孝일 뿐이라 어찌 가히 不義한 金을 받아 不忠不義한 무리가 되겠느냐”고 대답하였다. 日警이 伯夷叔齊의 이야기로 석음을 회유하고 또 계속 저항하면 大阪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협박도 하였으나 끝내 굴하지 않을 것을 알고 더 탄압하지 못하였다. 1912년 高宗의 回甲 誕辰을 맞아서는 飛龍臺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感慨하여 “六龍移御未還宮 只有宮花寂寞紅 先天甲子千秋節 首北三呼恨不窮”라는 시를 남겼다. 석음은 비룡대의 얼굴 쪽에 한 臺를 건축하여 風泉에 우거할 뜻이 있었는데 母夫人의 병이 위중한 탓으로 果斷하지 못하였다. 1916년 송사 기우만의 執禮가 되었다. 1917년 6월에 日警이 다방면의 제도로 탄압하니 석음이 이르기를 “예의의 나라에서 나서 예의의 백성이 되어 예의를 지킴이 하늘 이치에 어그러지는 때를 만났구나”하고 항의하였다. 6월 23일에 병으로 자리에서 考終하였으니 67세였다. 1920년에 석음의 아들 日圭가 석음의 遺志를 받들어 飛龍之顔에 風泉臺를 축조하니 원근의 士類들이 일년에 한 번씩 臺아래에서 會講하고 釋菜儀를 행하였다.<sup>33)</sup>

석음의 문집으로는 『石陰遺稿』가 있는데 1929년에 처음 편집을 한 것 같은데 뒷부분의 行狀이 1933년에 쓰여지고 1978년에 쓴 墓表가 덧붙인 것을 보면 언제 간행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남아 있는 『石陰遺稿』는 1989년에 전라남도에서 향토문화연구자료로 발행한 것이다.<sup>34)</sup>

33) 石陰先生行狀, 石陰先生墓表, 『石陰遺稿』, 鄕土文化研究資料 第二十八輯 발행: 全羅南道·長城郡 편집: 韓國古文研究會, 인쇄: 保景文化社, 1989, 385-395쪽.

『石陰遺稿』의 내용은 卷之一 詩 164수, 卷之二 書 31편, 卷之三 序 11편, 卷之四 記 19편, 說 4편, 跋 7편, 傳 3편, 卷之五 祭文 7편, 上梁文 3편, 行狀 5편, 墓文 4편, 卷之六 雜箸 8편과 附錄, 行狀, 墓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음의 사승, 교유관계를 밝히기 위해 석음의 스승이었던 노사 기정진의 문집<sup>34)</sup> 속에 수록된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총 34인의 문인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들을 성씨별로 보면 밀양 박씨 4명, 순천 박씨 1명, 경주 최씨 15명 (전부 담양에 거주함), 나주 오씨 1명 등으로 되어 있으며 문인들의 지역별 분포도는 광주 9명, 나주 7명, 담양 5명, 장성 3명, 창평 3명, 함평 2명, 고창, 남평, 순창, 김제, 흥덕 각 1명씩으로 석음이 살았던 광주를 중심으로 문인들이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석음 박노술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역사학계에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을 뿐 그의 생애나 행적, 학문, 문학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답지이므로 자료의 발굴과 보강과 함께 석음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5. 결 론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광주의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한문학 활동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광산 지역은 조선 중기에 호남 문학이 흥기할 때 그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곳이었다고 고찰되었다. 이는 광산지역이 위치한 지리적 배경과 이 지역에서 배출된 인물들의 행적을 통한 역사적 배경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 이전

34) 『石陰遺稿』, 郷土文化研究資料 第二十八輯 발행: 全羅南道·長城郡 편집: 韓國古文研究會, 인쇄: 保景文化社, 1989.

35) 蘆沙先生紀念事業會, 『蘆沙先生全集』附 答問類編, 「淵源錄 先生門人編, 諸家門人編」, 1983, 927-928쪽.

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인물들로 訥齋 朴祥(1474-1530), 高峰 奇大升((1527- 1572), 漆溪 金彦琚(1503~1583)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근대 이후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한문학 활동을 後石 吳駿善(1851-1931)과 石陰 朴魯述(1851-1917)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근대 이후 이 지역의 한문학 활동을 보다 심도있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자료가 더 보강되어 심도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高峰先生年譜, 『국역 고봉전서』5, 민족문화추진회, 2007, 8쪽.  
金彦琚, 『漆溪遺集』全, 湖南文化社, 2004, 43-46쪽.  
\_\_\_\_\_, 『風詠亭 詩選』, 湖南文化社, 2007, 203-204쪽.  
蘆沙先生紀念事業會, 『蘆沙先生全集』附 答問類編, 「淵源錄 先生門人編, 諸家門人編」, 1983, 927-928쪽.  
民族文化推進會, 「訥齋集」Ⅱ, 『韓國文集叢刊』19, 景仁文化史, 1995, 93쪽.  
朴魯述, 『石陰遺稿』, 郷土文化研究資料 第二十八輯 발행: 全羅南道·長城郡 편집: 韓國古文研究會, 인쇄: 保景文化社, 1989, 3-5쪽.  
吳駿善, 『後石先生文集』, 韓國歷代文集叢書, 韓國文集編纂委員會, 景仁文化社, 1991, 538-560쪽.  
李晔光, 『芝峰類說』권14, 文章 7, 시예.

광산구청 홈페이지-광산소개-지역특성.

광주광역시 홈페이지-광주역사, 9-15쪽.

고영진, 「노사학파의 학통과 사상적 특성」, 『문향』 제11호, 장성문화원, 2000, 63쪽.

노기욱 외, 『후석 오준선의 생애와 사상』,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11.16.

李丙疇, 『韓國漢詩의 理解』, 민음사, 1987, 141-143쪽.

장선희, 「近代 이후 長城 地域의 漢文學 活動에 관한 고찰」, 『古詩歌研究』 제23집, 2009년 2월.

\_\_\_\_\_, 『호남문학기행』, 박이정, 2000, 24-39쪽.

조용헌, 「한국 누정문화의 최고봉, 고봉의 ‘계산풍류」, 『전통과 현실』 24호, 2003, 고봉학술원, 53-60쪽.

玄相允,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977(6판), 368쪽.

투고일 : 2012년 1월 10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literature activity written  
by Korean-chinese letter in Gwang-ju  
(Focus on the gwang-san area)

Chang, Sun-hee

This study is the research into the literature activities written by Korean-Chinese letter done after modern age in Gwang-ju. Especially, I concentrate on the literature activities done in Gwang-san area in Gwang-ju. It is because I consider that literature activities written by Korean-Chinese letter done after modern age in Gwang-ju are actively done in Gwang-san area.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because of its geograph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I judge that Gwang-san area is the main center that many literature activities written by Korean-Chinese letter are done when the Honam literature thrive. I study Park Sang, Ki Dae-seung, Kim Un-geo and so on who work in this area in the middle of the Choseon Dynasty. I study Oh Jun-sun and Park No-sul, the pupils of (No-Sa) Ki Jeong-jin, who work in this area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I think that an in-depth study and more data about them are followed.

Key words : Gwang-ju, Gwang-san, Park Sang, Ki Dae-seung, Kim Un-geo,  
Oh Jun-sun, Park No-sul